

완도 소년·소녀들의 꿈, 강진에서 K-팝으로 울려 퍼지다

강진 전남음악창작소 'K-사운드 메이커 캠프' 성료 보길중 20여명 참가 최첨단 장비로 직접 음원 제작



완도 보길중 학생들이 강진 전남음악창작소에서 K-사운드 메이커 캠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강진군에 있는 전남음악창작소가 도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며 '2026 전남 도서 청소년 K-사운드 메이커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전남음악창작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완도 보길중학교 학생 및 교사 3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한 음악 창작 캠프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리적 여건 탓에 전문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최첨단 음악 제작 인프라를 제공하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경험을 통해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의 문을 연 'AI 송라이팅' 세션에서 학생들은 생성형 AI 툴을 활용해 자신들의 일상을 음악으로 녹여냈다. '보길도 등곶길', '우리들의 점심시간' 등 친숙한 주제를 바탕으로 가사를 쓰고,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힙합, K-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직접 설계했다.

이어 진행된 '스튜디오 마스터' 과정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전남음악창작소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실제 음반 제작 공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전문 녹음실에서 보컬 녹음을 진행하고, 악기를 녹음하며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믹싱 및 마스터링 과정을 참관하며 하나의 음원이 완성되는 정교한 과정을 학습했다.

캠프에 참여한 보길중학교 3학년 김나경 학생은 "교과서나 영상으로만 보던 전문 스튜디오에서 내 목소리와 악기들을 직접 녹음해보니 마치 진짜 가수가 된 것 같아 실됐다"며 "우리가 연습한 곡들을 직접 녹음하고 만들 수 있어 정말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을 지도한 박예은 교사는 "아이들이 섬을 떠나 강진의 우수한 시설에

서 전문 멘토들과 교감하며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니 대단히 뿌듯하다"고 말했다. 황선미 교장은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번 캠프는 단순히 교육적 차원을 넘어 강진군이 인근 지자체와 상생하며 '관계인구'를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관 간 협력과 시설 인프라 활용만으로 도출해 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김기태 대표이사는 "보길도 청소년들이 강진에서 보낸 2박 3일이 각자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남음악창작소의 우수한 인프라를 개방해 강진을 전남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과 관계인구가 강진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음악창작소는 이번 캠프를 통해 제작된 모든 음원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강진의 매력을 알리는 로컬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강강술래 예능보유자 박용순 씨,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존, 후진 양성에 헌신해 온 공로 인정 받아

진도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강강술래 예능보유자 박용순 씨가 제69회 전라남도 문화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문화상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박용순 씨는 오랜 세월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존, 후진 양성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박용순 씨는 평생을 진도의 무형유산 현장과 함께하며 전통의 원형을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개행사와 교육, 전시 활동을 통해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생활 속 확대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살아 숨 쉬는 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수상은 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진도 무형유산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그 전승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도군은 이를 계기로 지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박용순 선생님의 전라남



도 문화상 수상은 진도 무형유산 전승의 깊이와 저력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국가·전라남도 지정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전승 활동 지원, 전수 교육 활성화,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진도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장성군 이혁재 씨,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대상 수상

장성군의 이혁재 씨가 지난 1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5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대상' 시상식에서 재배·생산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대상'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혁재 씨는 2008년부터 황룡면에서 상추, 깻잎 등 쌈채소를 재배하는 지역 농업인이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유용 미생물을 활용해 해충 피해를 예방하는 등 친환경농법에 입각해 농사를 짓고 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토양 보호에도 앞장선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영광군, 2026년 공수의 위촉장 수여

공수의 운영을 통한 예방 중심 방역체계 구축

영광군은 1월 13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역 축산 방역 강화를 위해 공수의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공수의들은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지역별 담당 구역에서 활동하며, 영광군 가축방역사업계획에 따라 예방약품 공급 및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구역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찰, 채혈 등 긴급 방역조치에 즉시 투입되며, 소규모 농가의 구역역 백신 항체

영광/이현식 기자

순천시 삼산동, 어르신과 소통하는 새해맞이 경로당 순회 방문

삼산동 관내 29개소 경로당 어르신들과 현장 소통의 장 마련

순천시 삼산동행정복지센터(동장 최홍미)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관내 29개 경로당 순회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어르신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방문기간동안 경로당 난방시설점검과 함께 여가 프로그램, 건강 교육,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어르신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실질적인 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로당의 한 어르신은 "바쁜 일정에도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이 잘 모르는 시정홍보 내용도 세심하게 알려주고 경로당 불편사항도 직접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최홍미 삼산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소통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작은 불편사항도 놓치지 않겠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전남교육청, 장흥에서 '학생 성장 중심 교육' 현장 소통

초·중 통합운영학교 및 고교학점제 운영 등 교육가족 의견 청취

전라남도교육청은 13일 장흥 지역 학교를 방문해 특색교육활동과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날 장흥읍산초·중학교와 장흥고등학교를 차례로 찾아 교육과정 운영과 특색교육활동 전반을 공유하며, 학교 현안과 지원 방향에 대해 교육가족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방문한 장흥읍산초·중학교에서는 초·중 통합운영학교 운영을 기반으로 학생의 기초·기본학력 신장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특색교육활동을 살폈다. 특히 초·중 연계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함께 특색교육인 '용산 영어리(English Global Leader)' 프로젝트의 AI 기반 단계형 영어 읽기 활동, 교과·장의적 체험활동·방과후 프로그램을 연계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방문한 장흥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사례를 중심으로 교직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학생의 진로·적성을 반영한 수업 운영 및 수업혁신과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미래 핵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소통하며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염선호 기자